



미국 제조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김세중 선임연구원

■ 미국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와 낮은 임금상승률에 힘입어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면서 제조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2010년 이후 미국 제조업 고용은 2.9% 증가하면서 2.4%, 1.9% 증가한 독일과 캐나다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G7국가인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제조업 고용자 수는 1,179만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 2,0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7~2009년 동안 2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이후 32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함.
-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 Mark Zandi는 지난 10년간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며, 달러화 약세로 달러환산 단위 노동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지난 8년간 매년 15% 이상 임금이 상승한 중국에 대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기업들의 미국 재이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고유가에 따른 운송 비용 증가도 미국 내 생산의 경쟁력을 높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조지타운 대학의 Brad Jensen 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그는 연간 수입이 4만 5,000달러를 상회하는 고급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분야라고 지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위해 미국경제는 금융, 미디어,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Financial Times, 1/17)